



댕댕이·냥냥이도 건강 위해 양치는 반드시...



반려동물의 치아 관리

동물 전용 칫솔로 하루 1회 이상 권장 구강 건강관리 보조제품 사용도 좋아 본격 양치 전 충분한 연습 기간 가져야

예부터 치아의 건강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감사 5가지의 복, 즉 오복(五福)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오복은 수(壽, 장수), 부(富, 부유함), 강녕(康寧, 건강함), 유호덕(攸好德, 덕과 선을 베풀), 고종명(考終命, 편안한 임종) 5가지를 일컫는 말이며, 엄밀히 말하면 치아의 건강이 직접 언급돼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건강이 오복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그만큼 몸의 건강에 있어 튼튼한 치아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게 치아의 건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튼튼한 치아는 동물들에게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동물의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치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동물들의 치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치아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반려동물도 양치가 필요한가?

A. 집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도 음식을 먹으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빨 표면, 이빨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남게 된다. 이러한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와 고양이들 양치 시에는 절대 사람용 칫솔, 치약을 쓰지 않도록 하며 동물 전용 칫솔,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 양치는 하루 1회 이상을 권장하며 양치와 함께 다양한 구강 건강관리 보조제품들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

Q. 동물들이 양치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A. 동물들은 양치 과정 자체를 매우 불편해하거나 무서워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 무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양치 전 충분한 연습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연습은 (입 주변 만져보기→입 안에 손가락 넣어보기→이빨 및 잇몸 만져보기→치약 맛보여주고 발라주기→손가락 칫솔로 양치→동물전용 칫솔로 양치) 같은 순서로 진행하되, 각 단계 별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 또 이러한 연습을 어린 나이일 때부터 시작하면 양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Q. 동물들을 양치할 때 입에서 자꾸 피가나요!

A. 잇몸 등에 염증이 있어 조직이 약해진 경우 양치 등의 자극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양치 시 입에서 피가 나거나 유독 거부감이 심한 경우 구강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양치를 지속하기 보다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현재의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주는 것이 좋다.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구강 검진을 받아주는 것을 권장한다.

Q. 동물들도 스케일링이 가능한가?

A. 입 안의 음식물 찌꺼기는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어져 치석으로 변하게 된다. 한 번 만들어진 치석은 이빨에 단단하게 붙게 돼 일반적인 양치로 잘 제거가 되지 않는다. 장기간 방치된 치석은 잇몸과 이빨에 염증 등을 일으켜 손상을 유발하므로 스케일링을 통한 제거가 필요하다. 다만 동물들의 스케일링 시 안전하고 완전한 치석 제거를 위해서는 단시간의 수면 마취가 꼭 필요하다. 진행 전 담당 수의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김 윤 기
제주키움동물병원장

영화觀

유년의 집

윤단비 감독의 데뷔작 '남매의 여름밤'은 어린 남매가 여름 한 철 할아버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고모와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줄거리이고 제목의 영화다. 하지만 단조로운 설명의 가능성과 달리 '남매의 여름밤'은 유년 시절의 공간·시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게 매일 다른 얼굴로 삶을 마주 보게 되는지 정밀하게 묘사하는 작품이다.

어느 여름, 중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이는 옥주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짐작되는 동주 남매는 대면대면한 사이인 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를 온다. 몸이 불편하고 말수가 적은 할아버지는 이층 집에 혼자 지내고 계셨고 그 집은 창이 크고 채광이 좋은 아름다운 양옥집이다. 마당엔 할아버지가 가꾼 식물이 초록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대사가 많은 작품은 아닌데 인물, 시간 그리고 공간이 짓는 표정들이 유독 대사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영화가 '남매의 여름밤'이다.

나는 이 장면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정원에 물을 주고 있던 여름날이다. 손자 동주는 열린 창문으로 할아버지를 부르고 손을 흔든다. 아무 표정 없이 호스로 물을 뿌리던 할아버지는 동주 쪽으로 돌아서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마주 흔든다. 이런, 나는 그 장면의 아름다움 앞에서 그만 울어버렸다. 그 장면에 대사는 동주가 외치는 "할아버지!" 한 마디뿐이었지만 동주의 숨소리와 파열을 없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수분이 많은 바람에 천천히 부딪히는 잎들의 소리, 물을 뿜는 호스에서 나오는 방울과 줄기의 소리 그리고 마주 흔드는 두 사람의 손에서 느껴지는 어떤 작고 좋은 소리들이 여름의 마당집이라는 시공간을 눈부신 감각의 언어로 전해주고 있었다.

'남매의 여름밤'은 공감각적으로 유년의 집을 추억하는 영화다. 고소한 콩국수의 맛, 술 취한 고모의 입에서 나오던 들치기근한 맥주의 향,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전축의 질감, 동주의 손에 꼭 쥐어진 소꿉배에 묻은 엄마의 온기와 그것을 바라보는 옥주의 마음속



영화 '남매의 여름밤'.

에 묻혀진 덩어리의 무게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재미있게도 옥주와 동주 남매뿐만 아니라 아빠와 고모 역시 남매로 그들의 여름밤을 다시 함께하고 추억한다. 엄마의 자리가 비워진 공간 안에서 남매는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는 사이이자 여전히 서툰 아빠의 걸음을 부축하는 동반자가 된다. 어쩌면 남매는 태어나 처음 만나는 가장 가깝고도 먼 타인일 것이다. 자라는 매일 동안 서로의 마음을 들고났던 관계는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 이상으로 애뜻하지 않을까. 슈퍼 앞의 앉아 어둠이 내린 여름밤을 어깨에 지고 캔맥주를 나누는 남매의 대화 속에 더 뽀족해질 수도 있을 고된 투쟁들이 자욱하게 되살아나는 지나간 향의 기운에 덮인다. 나는 그 장면들이 주는 덜 못된 것들의 토닥거림에 반해 버렸다.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과 지나버린 시간들 사이에 놓인 계절의 공기를 이토록 아름답게 담아낸 여름 영화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다시 '남매의 여름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제껏 여름 영화는 대개 청춘의 상징처럼 느껴지곤 했는데 이 작품이 그리는 여름은 심대 후반부터 삼십 대 초반에 걸처진, 이룰대면 욕망하는 젊음의 바다라든가 한 철 로맨스의 정념 같은 것들이 담겨 있지 않다. 그저 유년의 집 안에 들고 나는 공기를 한 모금씩 들며 마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장면들이 모여 근사한 가족 영화가 완성됐다.

포털 사이트에서 누군가 이 작품에 대해 쓴 한 줄의 평이 가슴에 콕 하니 박혀서 기록해둔다. '계절은 다시 오지만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화가 있어서 그 시절과 계절을 함께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다. '남매의 여름밤'을 추천한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가락제주특별자치도총친회 · 김해김씨좌정승공파총친회 제22대 임원



회 장
김 태 훈



상임부회장
김 동 주



인방회장



김 동 오

후찬회장



김 승 업

총방회장



김 정 신

검계회장



김 상 훈

의방회장



김 병 수

부 회 장



김 상 식

필방회장



김 창 희

부 회 장



김 광 수

예방회장



김 석 종

부 회 장



김 성 범

안방회장



김 철 용

부 회 장



김 남 식

신방회장



김 성 준

부 회 장



김 택 남

지방회장



김 용 민

부 회 장



김 태 엽

응규회장



김 영 종

부 회 장



김 상 훈

응호회장



김 수 찬

중무위원장



김 양 택

사 무 처



김 현 민

총무이사 김 상 영
재무이사 김 영 관
조직이사 김 하 진
협력이사 김 태 석
사업이사 김 태 현
홍보이사 김 유 심
여성이사 강 정 심



가락제주특별자치도총친회 · 김해김씨좌정승공파총친회 일동